

# 이 시국에... '쪽지 예산' 챙기기 바쁜 광주시의원들

### 예결위 증액 쪽지 예산 전년보다 2배 많은 40억원 민원성 사업 대부분...비품 등 소모성·일회성 지원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025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에 편법으로 이른바 '쪽지예산'을 증액해 논란이다. 특히 가뜰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시교육청이 요청하지 않은 예산까지 12억원이나 증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은 20건 43억원이다. 이 중 시교육청 제출액이 아닌데도 예결위 자체적으로 증액한 예산은 12억원에 이른다.

예결위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챙긴 사업들은 ▲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강당 공기 정화 기기 시범 사업 ▲평생교육 활동 지원(수영장 운영·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주간보호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운영 ▲다목적 강당 수납식 관람석 개선 등이다.

'쪽지예산'은 일반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일부 예산은 시의원 자신과 관련한 민원인 또는 업자와 결탁한 사업 예산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예산 관련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 건수가 늘어난 데다 액수도 2배 가까이 뛰면서, 의원들의 쪽지예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인 2024년도 예산 증액은 17건 21억원이었다.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광주보다 민원성 예산을 쉽게 수립할 수 있다는 매력(?)이 알려지면서, 전체 의원 23명

중 11명이 물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시의회 안팎에선 교문위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이 물린 것을 두고 광주시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부담이 적고, 지역구 주민 중 학부모 비중이 높은 만큼 민원 해결 성과도 두드러진다는 해석 등이 제기됐다.

여기에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끄는 광주시는 시의원의 지역구 예산 배정이 전보다 간간해진 반면 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관련 예산을 쉽게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흘러나왔다.

교문위 희망 의원이 많았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예결위 역시 광주시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시교육청을 통해 쪽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위에는 위원장 등 교문위 소속 의원 3명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쪽지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본질보다는 선심성·일회성 지원이라는 데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편법 증액한 예산은 시설 개·보수 등 학습환경과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대부분 비품 등 소모성 예산"이라면서 "결국 불필요한 민원성 예산 증액은 결국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 개선 등에 써야 할 예산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교문위에서 삭감된 이정선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시의원의 쪽지 예산을 '수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참신·다양한 의정활동에도 '불통 의회' 낙인

### 광주시의회 2024 의정 결산

광주시의회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피케팅 시위를 하는 등 참신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단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파열음을 내면서 '소통하는 의회'는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총 8회(125일)의 회기를 운영했고, 이 기간 동안 98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또한, 91개 기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934건의 시정·제안사항을 냈으며, 현장 방문 21개소(54개 장소), 시정질문 23회, 5분 자유발언 26회, 성명서 발표 19회, 인사청문 3회, 정책토론회 38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젊은 의원들 중심의 5·18 기념식에서 정부를 향한 '5·18정신 헌법 수록 촉구 피케팅 시위'는 크게 주목받았다.

시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낸

점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산하기관 예산 편성 규정 위반, 광주영어방송 존치, 광주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 문제 등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 보완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제9대 시의회가 표방하고 있는 '공부하는 의회' 구현에는 성공했지만 의원 간 불협화음으로 '소통하는 의회'는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다.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단 선거 등 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가 상임위를 독식하기도 하고, 동일한 상임위원장 낙선자에게 세 차례의 투표 기회를 주는 등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폐해가 끊임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 간 내재된 감정싸움과 의원들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특정 상임위원장 '탄핵' 추진과 일부 의원의 뒤늦은 윤리위원회 회부 등으로 내용을 겪기도 했다. 이 과정에 의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다져야 할 '의정 연합론' 부재도 지적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고흥 반디비체육센터에서 열린 '고흥군 정책비전투어 가보니' 토론회를 주재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제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영록 지사 "고흥, 글로벌 우주항·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 고흥군 정책비전투어 가보니

#### 고흥 발전 위한 7대 비전 제시

#### 대한민국 미래항공 중심지로

고흥을 오는 2045년까지 '글로벌 우주항'으로 육성, 대한민국 미래항공 교통의 중심지로 키우는 한편, '해양 휴양 관광 1000만명 시대' 개막을 이끌어가는 핵심 도시로 육성하는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23일 오후 3시 고흥 반디비체육센터에서 김영록 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송형근(민중·고흥 1)·박선준(·고흥 2) 도의원, 류제동 군의장, 정년과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고흥은 국내 유일 우주발사체 발사장을 갖추고 지방권 최초 국가

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한편, 국가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최초 UAM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항공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고흥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은 이어 고흥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해양휴양관광거점! 고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45년 글로벌 우주항 도약 ▲대한민국 미래항공 교통의 중심지 ▲해양 휴양관광 1000만 시대 개막 ▲대한민국 청년 미래농업의 선도 거점 ▲글로벌 수산물 생산기지로 도약 ▲소록도, 나눔과 웰니스를 잇는 글로벌 허브 ▲미래 고흥 SOC 4대 프로젝트 추진 등을 7대 미래 비전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전남지역 군 단위로는 최초로 농수산물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점을 바탕으로 한 '수출용 마른김 대규모 유통시스템' 구축 방안, 남해안 십자형 교

통망 구축을 위한 고흥-광주고속도로, 국도 4차로 확장, 고흥 우주선 철도(별교-고흥-녹동)을 잇는 고흥 우주선 철도, 다도해 선사인웨이 연륙·연도 교 건설(고흥-완도) 등의 정책도 이날 비전토론회 테이블에 올랐다.

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서는 고흥지역 주민, 김영록 지사, 전남도 실국장들 간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고흥이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항공 기반 시설을 갖추고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중인 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노스페이스 정훈 전무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에타면제 결정에 따른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마련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5곳 전국 최다 선정

### 지역특화재생 장성, 뉴·빌리지 광양·담양·장흥·강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장성과 광양·담양·장흥·강진 등이 각각 지역특화재생·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국비 673억원을 포함해 모두 1122억원이 투입돼 장성은 '편백으로 치유하는 큰푸른 장성', 광양시는 '주거정비로 새로운 도약, 그린에너지 성황마을', 담양군은 'JIU(지유)와 함께 살아가는 담양 대치빌리지'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

다. 장흥군은 '생활권 중심지로의 재도약! 머무름이 행복한 관산읍', 강진군은 '살기 좋은 행복 보금자리, 목리'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특화재생' 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춘 도시재생사업이며, 올해 신규로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와 개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등 거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

선시키는 사업이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21개 시·군 53곳에 7554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까지 11곳이 완료되었고, 42곳은 추진 중이다.

문인기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역사, 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문화신협**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